

또 폭설 예보...이번엔 제설작업 제때 이뤄질까

주말·휴일까지 최대 30cm 예보 강추위도 다시 기승
광주시, 민·관 장비·인력 총가동 불편 최소화 주력
비탈길 등 제설 강화...‘내집앞 눈치우기’ 동참 호소

지난 주말·휴일 폭설 당시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의 ‘늑장 제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22일부터 또 다시 폭설이 예보됨에 따라 광주시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제설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광주시방위상청은 21일 “22일 새벽부

터 주말·휴일까지 광주·전남엔 최대 30cm의 눈이 내리고 강추위도 다시 기승을 부리겠다”고 예보했다.

22일 오전 0~6시 사이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눈은 22일 이른 오전 전남 서해안에서부터 시작돼 광주·전남 전역으로 확

대되겠다.

24일까지 적설량은 광주·전남(동부 남해안 제외) 10~25cm로 예보됐다. 전남 서부와 광주 일부 지역엔 최대 30cm까지 쌓이겠다.

최저기온도 다시 영하권을 밀돌아 22일 최저기온은 나주·담양·화순·곡성 영하 5도로 가장 추겠다. 나머지 지역은 영하 4도~0도 사이다.

23일부터 최저기온이 소폭 하락해 더 추겠다. 이날 최저기온은 담양·곡성 영하 9도, 화순 영하 8도, 광주·나주·장성·구례·보성 영하 7도, 영광·함평·영암·순천·광양·강진·장흥·고흥 영하 6도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장비·인력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작업에 투입,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눈길 차량 사고 뿐만 아니라 보도·골목길 보행자 낙상사고도 빈발함에 따라 광주시는 ‘큰 도로는 시청에서, 작은 도로는 구청에서, 내 집 앞 골목길은 시민이’라는 ‘눈 치우기 캠페인’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광주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자체 보유 장비 뿐만 아니라, 민간장비와 인력까지 총동원해 527개 노선 685km 구간의 제설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경사진 도로와 상습 결빙 구간에는 기상 상황에 대응해 제설제를 집중 살포해 도로가 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폭설 비상 단계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발송, 대중교통 증편, 등고시간 조정, 공직자 눈치우기 및 출근시간 조정 등 원활한 출근길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내 가족과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한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참여도 호소했다. 보행자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설 장비 투입이 어려운 골목길과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의 경우 시민 참여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자치구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상가와 주택 등 건축물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의 책임을 시민’으로 명시된 만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만이 내 가족과 이웃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조례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제설 자재(염화칼슘·소금)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제설 자재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아파트 앞 진출입로 등 많은 양의 제설자재가 필요하면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과에 요청하면 된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많은 눈이 내릴 경우 선제 대처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석강·안재영기자

성탄절·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

광주시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광주시는 21일 “양림&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리고 있는 양림동 일원, 콘서트가 예정된 광주여자대학교와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소화기 등 소화시설 비치, 시설물 전도 예방 조치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창로 등 도심 변화가의 인파 밀집에 대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31일 밤부터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2022~2023년 송·신년 행사는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행사 전 사전점검과 행사 중 합동 상황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불꽃놀이로 인한 화재와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펌프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대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시설, 공연장도 점검해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석강기자



고사리 손으로 만든 팔죽용 ‘새알’

동지(冬至)를 하루 앞둔 21일 오전 광주 북구 중흥하나어린이집에서 ‘팔죽먹는 날’ 행사가 열려 아이들이 팔죽에 넣을 새알을 정성껏 만들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내년 기초연금 月32만2천원...국민연금·전보개혁 본격화

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月162만원, 장애인 연금은 40만2천원

내년 기초연금 수급액이 월 32만2천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기준은 월 162만원(4인 가구)으로 오른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취약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약자 복지’ 확충 계획을 밝혔다.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천80원에서 내년 540만964원으로 5.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

준 월 소득 162만289원 이하 가구에 주어지며, 이 기준 금액과 가구 소득의 차액만큼이 지급된다. 소득이 0원이면 최대 162만289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최대액은 154만원이었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역시 생계급여 인상 폭만큼 올리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대상 질환을 넓히고 한도도 연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린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인상되고 대상은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늘어났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8천원에서 40만2천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 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나이가 차서 보육원 등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수당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도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진행 중인 장기 재정주계 결과가 내년 3월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손질하고 과대 외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의 개혁을 추진한다.

진료비 지불제도 다변화, 수가 결정구조 개편, 건강보험 투병성 강화 등 중장기 과제도 논의해 종합계획에 반영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섬진강 유역 주민 장내기생충 감염 많다

질병청 조사 결과...광양 12.9%·순천 9.8%·화순 8.4%

5대강 유역 유행지역 주민들의 5.3%가 장내기생충에 감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광양은 감염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장내기생충 발생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청은 지자체 보건소와 협력해 한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금강 등 5대강 유역 지자체 중 장내기생충 질환 유행지역 36개 시군의 주민 2만8천918명을 대상으로 간흡충, 장흡충, 회충 등 11종의 장내기생충 진단을 했다.

그 결과 전체 장내기생충 감염률은 작년 조사 때보다 0.1%P 증가한 5.3%였다.

남성(7.6%)이 여성(3.7%)보다 2배 이상 높았는데, 50대 남성(9.6%)과 60대

여성(4.9%)이 특히 높은 편이었다.

섬진강 유역의 감염률이 6.8%로 다른 강 유역보다 높았다. 광양시가 12.9%로 조사 대상 시군 중 가장 높았고, 순천시(2.4%→9.8%)와 화순군(3.1%→8.4%)은 작년보다 감염률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광양시 다음으로는 안동시(10.1%), 순천시(9.8%), 하동군(8.7%)이 높은 편이었다.

한편, 장내 기생충 중 식품이 매개체가 되는 간흡충의 감염률은 3.3%였다. 2011년 조사 때 11.1%였던 것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보건소와 협력해 장내기생충 감염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수준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전남 명품 지하수 50곳 선정 책자 발간

전남보건환경영, 기능성 성분 함유량 등 반영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미네랄과 기능성 성분을 함유해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명품 지하수 50곳을 선정, ‘전남도 지정 명품지하수 50선’ 책자를 발간했다.

명품 지하수 선정은 전남지역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해 개발한 지표(J-IND EX)를 적용하고, 먹는물 안전성 평가를 중점으로 미네랄·기능성 성분 함유량 등의 점수를 반영해 이뤄졌다.

2016년부터 매년 10개 지정적 발굴해 2020년까지 50선을 선정했다. 하지만 도민 접근이 어려운 개인 소유 지하수를 포함하고 있어, 올해 공공성 높은 곳 12곳을 신규 발굴해 새로운 명품 지하수 5

0선을 확정했다.

선정한 50개 지점은 나주 농업기술원 등 공공시설 9곳, 해남 흑석산 자연휴양림 등 휴양림 5곳, 함평 용천사 등 사찰 3곳, 영광 유아송 체원원 등 먹는물공동시설 4곳을 비롯해 민방위비상급수 3곳,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26곳이다. 책자는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나환식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수질 분석과장은 “명품지하수 50선을 통해 우수한 전담의 지하수 자원을 널리 알리고 지속적인 수질 관리로 훼손되지 않게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구인모집공고

1천만원 소개 성과수수료

- 분양아파트 소개 업무
- 모델하우스에 고객 동반 방문
- 전문상담사 별도 성과수수료 1천3백만원
- 광주 최고급 아파트 분양홍보

입사문의 010-3205-6688

광주역앞 양한방용 병원건물 급매



- 광주역앞 이면도로 코너
- 상업지 대지534㎡ 6층연건평1,345㎡
- 병실25개, 70베드, 승강기1대 주차16대
- 스프링클러, 소방시설 2022.8월 법정시설 완비
- 양한방 의료장비 완비
- *** 인수와 동시에 빈몰 영업가능

[급매] 27억5,000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못 받은 돈 회수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 상담◀

절차적 편의
법절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전문법인

CMYK

+